

군민과 함께하는 희망 임실

‘2022년 군정설명회’... 관광산업화·지역경제활성화 등 주민 소통

임실군이 군민 중심의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위해 추진한 ‘2022년 읍면 군정설명회 및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주민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군민과 함께 열어나가는 희망 임실’이라는 슬로건으로 마련한 이번 설명회는 이달 14일 임실읍을 시작으로 22일까지 하루 2개 읍면씩 각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읍면을 순회 방문한 심 민 군수는 약 2시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차단과 백신접종 제고를 위해 애쓰

할 수 있는 지리가 되었다.

특히 임실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섬진강 옥정호 명품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임실치즈 식품·관광 명소화 반려동물산업 거점 육성, 성수산 생태숲 관광개발 사업을 심화 발전시킬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설명회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위해 추진됐으며, 정부 방역지침 완화와 더불어 철저한 방역 기

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을 위로 격려하고 방역에 동참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지난 민선 7기 임실 비전 성과와 2022년 주요 과제에 대해 보고하여 군민들이 군정을 더 쉽게 이해하고 공감



임실군이 제12회 결핵 예방의 날(3/24)을 맞이하여 지난 21일 임실을 전통시장과 터미널 일대에서 지역 주민 약 250명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을 진행했다.

결핵, 조기 발견·예방 중요

임실군, ‘결핵 예방의 날’ 캠페인 실시

임실군이 제12회 결핵 예방의 날(3/24)을 맞이하여 지난 21일 임실을 전통시장과 터미널 일대에서 지역 주민 약 250명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서는 결핵 조기 검진의 필요성과 결핵 예방을 위한 기침 예절 수칙을 안내했다.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포해 결핵 예방 홍보를 하였으며, 감염병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예방수칙

등을 안내했다.

심 민 군수는 “결핵은 치료보다 조기 발견 및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올바른 기침 예절을 실천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균형 있는 식사를 한다면 결핵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핵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보건의료원 감염관리팀(063-640-31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침체된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유치지원 사업 추진

순창군, 개별관광객 체험·숙박료, 단체관광객·버스비 지원

순창군이 침체된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관광객 유치지원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실시한다.



순창군이 침체된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관광객 유치지원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실시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개별 여행객, 순창군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이며 관내 음식점, 관광지,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의 지원조건을 충족 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4인 이상의 개별관광객에게는 체험비와 숙박비를 지원한다. 체험비는 1회 이상 체험 진행 시 체험비의 50% 내에서 1인 1회 1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숙박비는 관광지 1개소, 관내 숙박의 조건을 충족하면 1박당 1인 1만원이내에서 지원한다.

8인 이상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관

외 여행사에는 버스비(1인 1만원/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단, 유료 관광지 또는 농촌체험 1개소, 무료관광지 1개

소, 카페 포함 관내 음식점 식사 1식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사회적 배려대상자 위한 서비스 확대

남원시가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민원인의 증가에 따라 의사소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는 통번역기를 민원실에 설치 운영하는 등 민원실을 방문하는 어르신과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남원시 2021년 외국인 민원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외국인 관련 민원신청 건수는 48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남원관내 거주 외국인은 888명과 다문화가정은 594세대로 점차 외국인 민원이 증가하는 추

세에 있다.

현재 남원시는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능통한 직원들을 외국인 민원통역관으로 지정 운영 중이나 통역 가능한 언어가 제한적이고 직원 호출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어려웠다.

이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6개국의 다국어 언어를 실시간 음성인식으로 번역해 정확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는 통(번)역기를 설치해 의사소통 불편에 따른 민원



처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실에 설치된 행복민원센터의 북카페에 활자의 크기가 일반도서의 2배 이상으로 제작된 큰 글씨 도서 20여권을 구입·비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북홍면 작은 도서관 손택수 시인 초청 강연

순창군 북홍면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에서 오는 25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손택수 시인을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했다.

북홍 작은 도서관은 순창군에서 6번째로 개관한 작은 도서관으로 올해 1월부터 문을 열었다. 봄소식과 함께 찾아온 손택수 시인의 강연을 시작으로 독서 문화 콘텐츠 제공처로서 도서관의 면모를 선보이고자 한다.

강연의 1부는 아동·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여러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는 ‘시와 자연과 사람’을 주제로 진행된다. 2부는 조태일 문학상 수상 시집인 ‘붉은빛이 여전하니’를 매개로 시인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손택수 시인은 1998년 한국일보 신춘문에 언덕 위의 붉은 벽돌집으로 등단한 후 애지문학상, 이수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화관광부), 젊은 시인상(한국시인협회), 신동엽창작상,

임화문학예술상, 조태일문학상 등을 수상하였다. 또 발표 시집으로 <호랑이 발자국>, 나무의 수사학, 목련 집차, 떠도는 민지들이 빛난, 나의 첫 소년, 한눈과는 아이, 붉은빛이 여전하니’ 등이 있다.

한편 북홍 작은 도서관에서는 지난 2월 독서동아리를 편성하여 주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동아리 첫 번째 도서로 <붉은빛이 여전하니>를 선정하여 강연과 연관된 독서 활동을 진행했다. 회원들은 손택수 시가 지닌 서정적 정서에 공감하고 세련된 은유에 몰입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번 강연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진 상태다.

강연 참여 등 자세한 내용은 북홍면 작은도서관(070-8899-1110) 혹은 북홍 작은도서관 공식 카페(https://cafe.naver.com/bhsmlibrary)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지역 소식통

남원시,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남원시에서는 오는 3월 31일 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접수를 진행한다.

부착지원 사업량은 약 100대(사업예산 범위 내 변동가능)규모로, 자부담 비용은 장치가격의 10%~12.5%로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되며, 예산 범위에서 우선순위가(생계형 또는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와 최고등록일수, 현소유자의 취득이 오래된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및 선정요건은 지난해 12월 31이전 사용자 남원으로 등록된 5등급 경유차로 1인당 1대이며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금이 없는 차량 소유자(접수마감일 기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인증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로, 부착 시에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3년 면제되거나 부착이 불가할 수도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신규 교육생 모집

임실군이 오는 28일까지 관광객들에게 전문적인 해설 제공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교육생을 모집한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임실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관광자원 안내와 해설 서비스를 제공해 관광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양성·운영 중인 자원봉사자이다.

문화관광해설사 모집인원은 2명이며, 자격 요건은 임실군 문화역사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춘 임실군민으로, 자세한 모집 요강은 군 홈페이지(www.imsl.go.kr)를 참고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전북도에서 주관하는 신규양성교육(100시간) 수료 후 3개월(최소 105시간)의 현장 수습을 거쳐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부여받게 되고, 올해 하반기부터 임실 관내 주요 관광지 일원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